

2013 3.17 사순 제 5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서 43,16-21 <보라,내가 새일을 하려한다.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리라.>

제 2 독서 : 필리피서 3,8-14 <그리스도때문에 나는 모든것을 버리고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을 것입니다.>

복 음 : 요한 8,1-11 <너희 가운데 죄 없는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 제 2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비슷합니다. 즉 모두가 죄에 대해서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필리피서에서 바오로성인은 당신의 과거를 버리셨다고 하십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때는 영광스러운 과거를, 당신은 쓰레기로 여긴다고 하십니다. 에페소서 필리피서등의 여러 서간문에서 바오로성인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똑 같습니다. 그럼에도 2000 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아직도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 안됩니다. 성인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때 영광스러운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바오로성인은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바오로성인은 아주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카복음 18 장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사람은 바리사이였고 한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사이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면서 예수님앞에서 당당해 합니다. 다른 한편 세리는 이죄인을 용서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리사이와 같은 착각속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국 공동체 뿐만아니라 미국공동체전체를 놓고볼 때, 신자들 중에는 “나는 미사도 꺾하지 않았고, 십계명도 어긴것이 없어” 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오로사도는 이세상의 영광을 헌신짝처럼 버리셨습니다. 왜 입니까? 이 세상의 삶은 헛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이세상의 삶은 순간적 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 못하고 이 세상의

삶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제 사순시기도 끝나가고 다음주 부터는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 신앙을 택했는가? 나의 마음은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왜 예수님이 아직도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있는가? 미국 신자중에 오랫동안 교회를 멀리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사업때문에 시간을 낼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던분이 이제 마음을 돌리고 이년째 성당에 와서 살다시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그만두신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면서 지금은 성당일에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진정 어디에 가 있는지? 유아세례를 받기위하여 부모님과, 대부모가 함께 성당을 찾아 오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부모나 대부모들은 제가 본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기억력은 좋지 않지만 한번 본 분들은 3년이 지났건, 10년이 지났건간에,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다시 얼굴을 보면 기억을 합니다. 이런 분들께 미사에 빠지는 이유를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일때문에, 방문한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야 하기때문에 하면서 많은 이유를 열거 합니다. 시간, 일, 가족들 때문에 등등 하면서 교회를 멀리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진정 나 스스로,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느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보아야합니다. 미사를 자주 빠지시는 부부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당신은 얼마나 오래동안 연애의 달콤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면 10년, 6년, 3년, 6개월이라고 하며 다들 다릅니다. 그러면 연애 기간동안 얼마나 자주 전화를 했느냐?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일주일에 한번? 하면 펄쩍 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서로 만났으며, 시간만 나면 하루에도 몇번씩 서로 전화를 주고 받았다고. 그러면 그때는 일을 안하셨습니까? 그때는 가족들이 없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든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 내마음이 하느님께 가 있는지? 진정 내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십니다.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에게 “여인아 너를 단죄한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나에게 상처준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왜 공동체 안에는 싸움이 그치질 못 할까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작은일을 크게 부풀려서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이들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용서를 베풀었을때에 하늘나라를, 천당을 앞당겨서 사는 공동체가 될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미사중에 두가지를 청해보십시오. 하나는 내 마음이 진정 예수님께 향하고 있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믿고 원할수 있도록, 또 하나는 예수님 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용서할수 있도록 청해보십시오. 제 1독서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마라. 보라 내가 새일을 하려 한다.” 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수있도록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3,16-21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거센 물 속에 큰길을 내신 분, 병거와 병마, 군대와 용사들을 함께 나오게 하신 분. 그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 가는 심지처럼 사그라졌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랴.

들짐승들과, 송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리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는 샘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게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8-14

형제 여러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1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